

【현장보고】

## 평화를 교육하는 유엔 평화대학

권순정 (서울대학교)

### 1. 들어가며

2017년 10월 24일, 유엔 창립 72주년을 맞이했다. 유엔이 인준한 대학 중 하나인 유엔 평화대학(University for Peace, Upeace)의 학생들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생일 축하해, 유엔’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공유하며, 유엔 가족의 일원임으로써 자랑스러움을 표현했다. 이렇듯, 유엔 평화대학들은 유엔이라는 뿌리에서 출발한 기관으로, 유엔이 추구하는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비전,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 활동가 혹은 지성인을 길러내고자 하는 기관이다.

유엔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과 함께 인류가 더 이상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인식 하에 설립되었다. 유엔 창립선언문에는 유엔이 21세기 인류가 마주하는 전 세계적인 이슈 - 평화와 안보,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인권, 무장해제, 테러, 인도주의적 의료보전, 양성평등, 거버넌스, 식량문제 등 -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련의 맥락에서 유엔은 인류가 마주한 다양한 이슈들을 이해하고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인류의 과제인 평화와 안보, 인권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유엔 대학이 설립되었다.<sup>1)</sup>

첫 번째 유엔 대학은 1969년 일본 도쿄에 창립된 유엔대학(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이다. 유엔 대학은 연구중점 석사-중심 대학원 과정으로 유엔의 가치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 그리고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정책을 전달하는 장(locus)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 유엔 대학은 1980년 코스타리카, 산호세 근처 소도시인 시우다드 콜론(Ciudad Colon)에 설립된 평화를 위한 대학(University for Peace)으로 한국에서는 통상 유엔 평화대학으로 불린다. 이 대학 역시 석사-중심 대학원 과정으로 실천을 강조한다. 유엔 평화대학은 다양한 문화교류와 평화의 문화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 유엔 대학은 유엔이 제시한 이슈들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과정을 마치면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각 대학의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소개한다.

## 2. 유엔 평화대학들

### 1) 유엔 대학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1969년 설립된 유엔 대학은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우 탄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당시 유엔은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대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글로

<sup>1)</sup> David, Coleman, Philip W. Jones. *The United Nations and education: multilateralism,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Falmer, 2005), pp. 22~38 ; Kevin, Kester, "The case of educational peacebuilding inside the United Nations Universities: a review and critique."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vol. 15, no. 1(January , 2017), pp. 59~78.

별 싱크탱크이자 대학원과정을 가르치는 기관으로 유엔 대학 본부를 설립하였다. 유엔 대학의 미션은 협력적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유엔이 관여해야 하는 개발과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엔 대학은 유엔 회원국에 있는 선도적인 대학과 연구소들과 함께 일을 하며, 국제적인 학술 공동체와 유엔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 대학의 본부는 일본 도쿄에 위치해 있다. 본부의 역할은 유엔 대학 체계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유엔 대학은 현재 15개의 회원국 *(벨기에, 캐나다, 중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가나, 아이스란드, 일본,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15개의 연구소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있다. 유엔 대학 행정과 관련된 사무실들은 미국(뉴욕), 프랑스 유네스코 본부, 말레이시아에 있다. 각 연구소가 다루는 주제는 지역통합연구에 관한 비교연구, 물·환경·건강 연구, 컴퓨팅과 사회, 세계 개발경제 연구, 환경과 인간안보, 아프리카 자연자원 연구, 아이스란드-기반 연구, 정책연구센터, 세계 건강연구, 정책 기반 전자 거버넌스, 지구화, 문화와 이동에 대한 연구, 혁신과 기술에 관한 경제와 사회연구,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언 지역의 바이오테크놀로지 프로그램 등이다. 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총장은 유엔 사무차장급에 속한다.

유엔 대학 헌장에 나오는 비전과 미션, 그리고 기초를 근거로 유엔 대학에서는 다양한 대학원 과정도 제시하고 있다. 유엔 대학은 지구공동체가 마주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 필요한 학술적 기반을 가진 미래의 리더를 길러내는 목표 아래 석사·박사 과정을 비롯한 다수의 단기 프로그램들이 있다. 각 과정과 프로그램은 개발국과 선진국에 있는 저명한 학자들이 관여하며, 국제 학생들에게 유엔 연구의 직접경험과 원자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연구와 유엔의 일을 보며 다수의 정부

간 과정과 더불어 전문 기관과 직접 연결시키는 경험을 한다.

유엔 대학에서 진행되는 대학원 과정은 위에 제시한 모든 주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에 시작된 석사 프로그램은 “MSC에서 공공정책과 인간개발” 전공으로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Mastricht)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진행한다. 또 박사과정은 “지속가능한 과학” 전공으로 도쿄에 위치한 유엔 대학에서 진행한다. 이렇듯, 유엔 대학은 유엔의 가치와 목표인 평화와 관련 주제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성인들을 모으고 길러내는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유엔 대학과 연구소가 있는 곳에서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유엔 대학에서 발간하는 학술논문들을 공유한다.

## 2) 유엔 평화대학(University for Peace)



University  
for Peace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유엔 평화대학은 유엔이 인준한(UN-mandated) 고등교육기관이다. 유엔 평화대학은

1980년 12월 유엔 총회에 의해 조약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유엔 평화대학 현장에서는 본 대학의 미션을 “유엔 현장에 선포된 고결한 염원 하에, 평화를 위한 고등교육 국제기구와 함께 인류가 이해, 관용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의 정신을 증진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협력을 장려하고 세계 평화와 진보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요인들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유엔 평화대학은 학술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만의 현장을 선포하였고 이는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즉, 유엔 평화대학은 유엔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화와 안보 이슈를 다루는 전문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대학이 빠르게 혁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유엔 평화대학은 다학제간, 다문화-중심의 접근을 통해 갈등의 근

본 원인에 대해 다루는 새롭고 다소 엄격한 학술적인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엔 평화대학에서 진행되는 교육, 훈련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부분은 평화와 진보의 근간을 만들고 폭력, 갈등 그리고 테러에 근원이 되는 편견과 증오를 줄이는 것이다.

유엔 평화대학의 주요 프로그램은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1년 과정의 석사과정으로 크게 세 학과로 구분 - 환경과 개발, 평화와 갈등 연구, 국제법 - 되어 있다. 세부전공은 다음과 같다:

〈표 1〉 유엔 평화대학 석사과정 분야

환경과 개발	환경안보와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매니지먼트, 기후 변화정책,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평화와 갈등 연구	젠더와 피스빌딩, 국제평화연구(미디어, 평화, 갈등해결), 평화 교육
국제법	국제법과 인권, 국제법과 분쟁해결

그 외, 코스타리카 모국어인 스페인어 석사과정, 온라인교육, 박사과정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 몇몇 세부전공은 다른 국가의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어 복수학위제도(Dual Programme)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유엔 평화대학과 협약을 맺어 국제법 전공과 국제평화연구전공, 지속가능개발 전공이 진행된다. 또, 아시아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피스빌더 장학제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일본의 니뽄재단(Nippon Foundation) 후원으로 유엔 평화대학과 필리핀의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Ateneo de Manila University)이 복수학위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시아피스빌더 프로그램은 과정 이후, 평화 관련 기관에서 인턴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 3. 유엔 평화대학의 경험 속에서 배운 평화대학의 의미 회고

2005년, 필자는 코스타리카라는 낯선 나라에 있는 유엔 평화대학에 입학하여 평화교육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수행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다. 평화교육은 주로 평화활동의 한 분야로 이해된다. 또 학문영역에서 평화교육은 실천적인 학문이라고 이해되며, 일반 교육학과 평화학 사이에서 위치가 다소 애매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데 유엔 평화대학에서는 다른 여타의 평화 관련 학문주제(분야)들과 함께 평화교육을 전공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화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필자는 실천적이면서 동시에 학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본 대학에 지원을 했고,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유엔 평화대학에서 얻은 최고의 경험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을 사귄 수 있다는 점과 평화로운 자연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며 세계 평화/ 혹은 지엽적인 차원의 문제들까지도 편안하게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평화교육 전공의 학생들은 필자를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출신이었다. 서로 다른 경험과 평화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저명한 세계 석학 및 활동가들의 논의와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와 평화활동, 그리고 관련된 학술적 논의를 접할 수 있다. 학제는 1년 석사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과정이 진행된다. 크리스마스 방학(2주)과 부활절 방학(1주) 정도의 쉬는 시간만 주어질 뿐, 하나의 과목을 2-3주에 걸쳐 마스터하는 형태로 1년의 과정이 진행된다.

필자는 1년 동안 ‘평화와 갈등 개론’ ‘거버넌스, 국제 법과 인권’ ‘연구 방법론’ ‘평화교육 이론과 실제 I, II’ ‘문화와 학습: 폭력에서 평화로’ ‘폭력과 평화의 심리학’ ‘교육제도와 교육변화/개혁’ ‘언어, 미디어 그리고 평

화’ ‘프로젝트 개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교육’ ‘갈등전환과 피스빌딩을 위한 교육’을 수강하였다. 강사진은 필리핀, 아르헨티나, 코소보, 세네갈, 이집트, 코스타리카, 브라질, 미국-캐나다 배경에서 온 교수 및 활동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렇듯, 유엔 평화대학은 평화를 주제로 한 교육과 운동,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주제를 평화라는 큰 주제 안에서 다루면서, 동시에 각각의 출신국에 따른 서로 다른 관점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평화에 대해 비판적이고 총체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때로는 갈등을 겪는데 그 과정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해 가는 방향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일상적인 대화가 (조금 과장해서) 국제문제에 대한 외교담론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그것이 감정적인 것에서 시작되더라도 인간적인 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정치담론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은 구성원들이 모인 술자리라면 늘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유엔이라는 말처럼 전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이해를 토대로 평화와 폭력을 논하는 자리를 경험하기는 흔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님은 자명하다.

혹자는 외국의 유학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학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갈 나라에 이방인으로 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는 소수자가 되고, 그들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그러나 유엔 평화대학은 코스타리카인을 제외하고는 구성원 모두가 이방인이다. 그렇게 모두가 낯선 환경에 함께 적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의를 경험한다. 영어권/유럽권과 아시아, 아프리카인들이 오는 과정(비자 문제 등)부터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과정 등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국제 관계에서의 불평등을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중립국이라는 이유로, 군대가 없다는 이유로 코스타리카에 유엔 평화대학을 만든 배경을 이해

하면서도 그 이면을 의심하게 되고 알아가게 된다. 여러 가지가 책이 아닌 경험으로 얻어지는 배움들이다.



〈사진 1〉 유엔 평화대학 전경



〈사진 2〉 평화와 갈등 개론 수업



〈사진 3〉 갈등전환과 피스빌딩을 위한  
교육 수업



〈사진 4〉 코스타리카 빈민지역  
현장탐방

한편으로 유엔 평화대학은 ‘석사과정’에서 얻어야 할 학문적 트레이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필자와 동기들 역시 우리가 여기서 생산해 내는 논문(2005년 당시 평화교육전공은 프로젝트 개발서를 작성한다)이 이후 박사과정을 진학하는데 인정이 되는 것이냐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엔 평화대학에서도 연구방법과 논문을 쓰는 과정에 대한



트레이닝을 상당부분 투자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심도있게 받는다(물론, 영국식 도제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제한도 많다). 상황에 따라서 유엔 평화대학에서의 논문이 인정되기도 했고, 그렇지 못하기도 했으나 박사과정에 진학한 졸업생들 대부분은 인정을 받고 박사과정에 있거나 과정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1년 동안의 경험과 그것이 이후 미치는 학문적, 사회적 영향이다. 흥미롭게도 나의 동기들 중에는 유엔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다. 국제평화연구 전공과 국제법과 인권 전공 친구들 중 4명 정도가 관련 기관에서 일한다. 나머지는 본인 국가 내에서 요구되는 평화활동에 전념하거나 구체적인 발전을 위해 아카데미를 선택해 박사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다. 냉정히 말하자면, 유엔 평화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유엔에 더 쉽게 취직이 된다거나 하는 실용적인 측면의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평화활동 현장, 교육운동 현장, 환경운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유엔 평화대학에서의 배움은 성취와 결과가 아닌 가치와 경험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나가며

평화를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평화’를 공부하는 것의 의미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치, 관념, 사고를 정립하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향후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일종의 로드맵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유엔 대학들은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유엔과의 관계 맺음 사이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유엔의 울타리에서 진행된다. 필자의 유엔 평화대학의 경험은 유엔 대학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험을 통해 평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학습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볼 수 있었다.

유엔 평화대학에서 추구하는 바와 배우는 내용은 현장에 나타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인류 모두가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다. 평화를 교육하고 배울 수 있는 기관은 결국 학습자가 평화로운 상태가 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전제들을 체험하고 토론하고 이론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평화자본(peace capital)이 나타나는 현상을 제기한 연구도 있다.<sup>2)</sup> 즉, 평화를 논의함에 있어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이 재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교육하는 기관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평화로운 사회 나아가 세계를 건설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전제들에 대해 동등한 위치에서 공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장(場)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보여주는 유엔 대학의 사례는 현재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유엔 대학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평화의 가치를 이어가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유엔 평화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필자와 같은 시기에 다닌 한국인 학생(국제평화연구 전공)은 국가인권위원회 인사였고, 필자는 갓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었다. 이후 평화교육 전공 한국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평화교육에 관심이 생겨 진학한 사람들도 있다. 졸업 후, 평화교육 활동가로 활동하기도 하고, 필자와 마찬가지로 학문영역으로 발전시킨 이들도 있으며, 본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은

2) Kevin, Kester, "On peace capital: the case of academic cultural capital inside the United Nations and its Universities,"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8, no 1 (June 2017), pp. 51-75.

각자의 방식과 활동영역에 있어 평화교육 또는 평화운동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며 유엔 평화대학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서로의 활동을 돌아보며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 평화연구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고찰하게 한다. 한국에서 평화는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 분단과 신자유주의 경제의 급성장, 불균형한 지구화와 그에 따른 다문화 현상, 그리고 일상의 폭력은 분리된 듯 연결되어 있고, 또 반대로 서로 다른 논의처럼 이해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연구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복잡한 사안들을 총체적이며 비판적으로 이해, 해석하고 분석해야 함을 말한다.

특히 현재 한국의 상황은 북한과의 관계와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화두이다. 누군가는 남북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평화라 할 것이며(여기서도 관점이 나뉜다), 누군가는 국내의 사회경제적 갈등, 소위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 평화라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연구는 우선, 서로가 생각하고 경험한 평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사회의 구성에 대해 다시금 탐색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유엔 평화대학이다. 유엔 평화대학을 거쳐 간 사람들을 보면, 결국 평화대학은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교육은 평화의 본질을 탐색하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필자는 현재의 한국 평화연구 및 교육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의 분단 상황은 다시금 유엔의 역할을 주목하게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위기에서 유엔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중심으로 입장을 유지하며 영향력을 미쳐왔다. 유엔의 정치적 영향력과 더불어 유엔 대학이 제시하는 학술적 논의를 통한 평화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지

향하는 평화연구의 방향성을 이어가는 것은 한국의 평화와 평화연구의 비전, 목표 그리고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 【참고문헌】

### 영문 자료

- Coleman, D. and P. Jones, *The United Nations and education: multilateralism,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Falmer, 2005.
- Kester, K, "The case of educational peacebuilding inside the United Nations Universities: a review and critique,"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vol. 15, no. 1 (January, 2016), pp. 59~78.
- Kester, K.(2017). "On peace capital: the case of academic cultural capital inside the United Nations and its universities,"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8, no. 1, (June, 2017), pp. 51~75.

### 인터넷 자료

-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https://unu.edu/>  
 University for Peace, <https://www.upeace.org/>

### 권순정(Kwon, Soonjung)

영국 버밍엄대학에서 “한국 학교교육에서 폭력과 평화교육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로 교육학 철학박사 이수, 코스타리카 유엔 평화대학에서 ‘평화교육’ 전공. 평생교육 및 시민교육, 문자해독교육론(한신대학교) 및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이화여자대학교) 강의. 시민 평화대학 커리큘럼 개발(비폭력평화물결) 및 학교 폭력 국제비교연구(Flinders University, Australia) 등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현재 서울대학교와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교육학과(교육사회학) 시간강사, 한국 교육사회학회 24대 연구조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